傳統建築 大廳 背面 開口部形式의 變遷에 관한 硏究

A study on the transition of the type of openings constructed at backside of DAECHUNG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s

鄭 明 燮*
Chung, myung Sup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rvey the transition of the type of openings in korean traditional architectures. To do this, various types of openings at the backside of Daechung of 23 Hyang-Gyo Myung-Ryun-Dangs were investigated.

After the classification in some groups according to their types and their periods of construction, the transition of the type of openings was analysed.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openings constructed from 16th to 17th century, the earliest form, is a ledged and battened panel window(or framed and ledged panel window) whose mullion is built on the frame of window. It is presumed that these types were widely used before 17th century.

(2) The next type is a ledged and battened panel window(door)(or framed and ledged panel window) which lacks a mullion. These types were thought to be customed after 18th century.

(3) The latest type, which is appeared from 19th to 20th century, is an characteristic backside opening(ledged and battened panel window or framed and ledged panel window) that among 3 column spacings the central one is enlarged in comparison with the right and left ones.

Through this transition pattern of the openings, can be menifested that the trend of 20th century is to enlarge convenience of usage by constructing door and eliminating some windows.

* 정회원, 양산전문대학 건축과 전임강사, 공학박사

1. 序 論

住宅을 비롯한 모든 건축물의 開口部는 의장적,기능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주요 구성요소이다.특히 防暑的이라 할 수 있는 傳統建築의 開口部는 대부분 窓戶가 시설되어 柱間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면서 건축물의 內,外部 공간을 성격 지우고 있다.이러한 開口部를 통해 우리는 그 건물의 立面的 특성과 함께 平面的 기능까지도 읽을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開口部(또는 窓戶)에 대한 많은 연구가 시도되어 상당한 진전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졸고[1]에서 밝힌 바 있는 세 가지 점[2] 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겠다.이에 본 연구는 앞의 세 가지 관점에 촛점을 맞추어 이번에 졸고에서 다룬 廳房間 開口部와 함께 大廳 내부의 공간을 특징 지우는 大廳 背面 開口部를 窓戶 중심으로 고찰해 보았다.

따라서 본 고는 開口部形式에 관한 일련의 연구로 開口部形式의 대체적인 變遷 경향과 그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體系化하여 건축 當時의 實體를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는 韓國傳統建築에 대한 이해를 보다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그리고 앞으로 이 방면 연구의 폭과 깊이를 더할 경우 건축물 細部形式을 통한 建築年代 평가시 보조자료의 한 부분으로[3],또 傳統建築의 復元資料로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배경에서 이루어진 본 연구는 우선 慶北地域에 소재한 42個所 鄕校 明倫堂을 그 대상으로 하여,이들 중에서 심한 變形으로 인해 典形을 크게 벗어나 자료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 23個所(표 1)를 최종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한편 開口部形式의 變遷은 먼저 조사된 자료를 몇 가지 形式으로 나누고,다음 이들을 건축時期別로 분류 분석한 후 변천의 흐름을 살펴보았다.

2. 現場調査 및 造成時期에 대한 前提

開口部形式의 現場調査는 柱間에 나 있는 窓戶 構成形式에 관심을 갖고 廳板 윗면에서 부터 上引枋(또는 웃틀)까지의 立面構成만 살펴보았다.立面構成 조사는 柱間의 벽체 종류,窓戶의 形式(종류,기능),開口部(窓,門)틀 맞춤과 이들의 部材狀態 및 옛 흔적의 有無를 살펴보고, 그 변형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세밀히 관찰하였다.

한편 부재상태는 風化 정도와 手法을 살펴보고,이를 다른 部材[4]와 비교 검토하여 新,舊部材와 변형 유무를 확인하였는데,이때 부재 홈 및 자국 등이 남아있는 변형 부분은 原形을 잘 간직한 기존의 開口部形式에 준거하여 復元하였다.본 연구에서의 복원은 解體 作業을 통한 精密實測調査에 의한 것이 아니라 現狀을 면밀히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흔적을 중심으로 추적한 것이다.이러한 한계로 인해 現場調査에서 찾아 볼 수 있었던 변형 부분의 전부를 復元하지 못했다.

建築沿革 조사는 기록(文獻資料,懸板,記文,上樑文,墨書銘,瓦記銘 등)과 관계자와 面談 등의 자료를 기초로 하였다.이들 자료에서 나타난 최종의 建築時期[5]를 우선적 推定年代로 채용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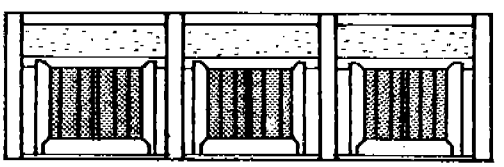
1) 鄭明燮,朝鮮時代 鄕校 및 書院建築의 廳房間 開口部形式 變遷에 관한 硏究,嶺南大,博士學位論文,1992.
2) i)變形정도와 有無 및 옛 흔적 등을 면밀히 탐색하지 않은 現狀에 치중하였고,ii)現狀의 造成年代는 後代의 變形이 무시된채 記錄年代에 의거하여 創建 當時의 것으로 간주되었고,iii)建築物의 用途別로 분류하지 않았음,위 논문,P.7.
3) 지금까지는 주로 공포형식을 建築樣式의 기준으로 삼아 建築年代 推定의 지표로 삼아 왔음.
4) 대상 開口部 상호간은 물론 建物 각 부분의 開口部와 細部形式(공포,盖工 등)의 部材.
5) 創建과 함께 再建立 차원에서 이루어진 전체적인 大工事를 의미하는 移建,還建,再建,改建,改築,再築,新築,重創,重建,復舊 등의 建築年度.

다.이와 같이 建築年代를 추정할 경우 舊制의 준용으로 인한 古式의 잔존과 後代 重.補修時의 부분적인 변형 등이 중복되어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記錄年代와 함께 건물의 전체 상태를 살펴보고,또 細部形式(공포, 臺工, 窓戶 등)들을 건축연대가 비교적 확실한 他建物과 상호 비교 분석하였다.이에 따라 현재 건물의 세부형식들이 推定建築年代와 많은 차이점을 보이고 있거나 또는 開口部 자체만 改變되어 있는 경우 開口部 造成時期를 重.補修時期[6]와도 결부시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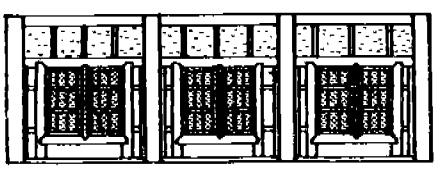
3. 開口部形式의 分類와 그 特性

現場 調査에 의해 수집된 각 건물의 開口部形式을 벽체에 나 있는 窓戶形式을 중심으로 그 구성요소들의 공통인자를 찾아 분류한 결과 세 형식으로 구분되었다.

3-1. I 形式



떠장널영쌍창
(용궁향교)



울거미널영쌍창
(영양향교)

그림 1. I形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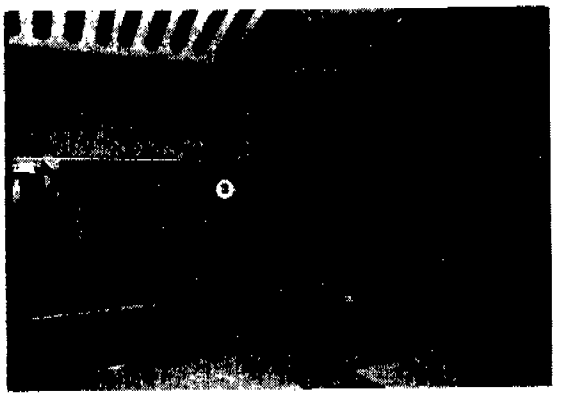


사진 1.인동향교(떠장널영쌍창)

이 형식은 각 柱間 벽체에 가운데설주(樘)가 있는 쌍여닫이떠장널창(떠장널영쌍창) 또는 쌍여닫이울거미널창(울거미널영쌍창)을 동일하게 시설한 것이다.여기에는 星州,仁同,善山,慶州,英陽,龍宮鄕校가 속하고 있다.한편 이들은 모두 창틀에 남아 있는 홈 흔적 등을 바탕으로 復元된 것으로,現狀 즉 復元前 모습은 전부가 II形式에 속하였다.

開口部는 모두 3間으로 구성된 각 柱間의 벽체 중앙부에 창틀이 나있는데,예외로 선산향교만 비교적 좁은 柱間에 폭이 넓은 左.右설주를 사용하여 창틀이 柱間 전체를 차지하도록 하였다.

주간의 벽체[7]는 心壁(성주,경주)과 板壁(인동,영양,용궁)으로 꾸며져 있다.

창틀은 출입 제한을 암시해 주는 머름과 함께 구성되어 있는데,유일하게 용궁향교가 머름을 들이지 않고 퇴중방 위에 운두가 높은(250 mm) 밑틀을 첩놓아 머름의 기능을 갖게 하였음이 특이하다.이들 창틀의 맞춤은 맞댄(성주,경주),안연귀(선산,영양,용궁),연귀(인동)맞춤으로 결구되어 있었다.창틀을 구성하고 있는 部

6) 여러번의 重.補修時期 중 建物의 現狀을 고려하여 가장 적절한 時期를 채용하였다.

7) 모두가 心壁으로 되어 있는 窓戶의 웃틀 윗 부분을 제외한 窓戶의 左.右壁體 종류를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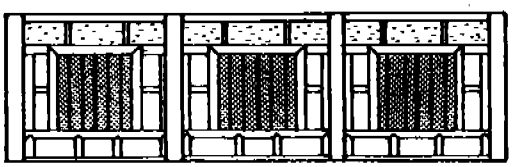
材들은 新材로 교체된 일부[8]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풍화상태나 마모정도 등으로 보아 建立(또는 重建) 당시의 것으로 보이는 舊材이다.

舊材의 창틀에는 가운데설주를 세웠던 것으로 보이는 장부구멍이 남아 있으며,또 일부 창틀의 배면쪽 上,下에는 둔테(인동,경주)와 그 흔적(선산)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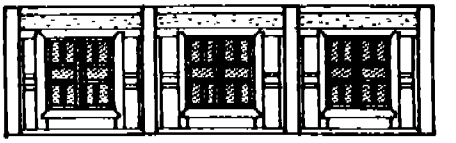
이러한 흔적들을 바탕으로 復元한 결과 古式[9]의 가운데설주를 세운 떠장널영쌍창(성주,인동,선산,경주,용궁)과 울거미널영쌍창(영양)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이들 중 인동,영양향교는 타향교와 달리 연귀맞춤한 창틀의 웃,밑틀에 가운데설주를 제비초리연귀맞춤으로 베푸는 공을 들인 開口部形式으로 눈길을 끈다.이와 같은 I形式의 現狀은 예외적인 용궁향교의 右挾間 開口部[10]를 제외한 나머지가 가운데설주가 없을 뿐 대체로 옛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形式은 雙窓에 가운데설주를 세운 특징을 읽게하는 것으로,이들은 16C 中期 後半에서 17C 後半의 비교적 빠른 時期에 나타나고 있다.

3-2. II 形式



떠장널쌍창
(예안향교)



울거미널쌍창
(개령향교)

그림 2. II 形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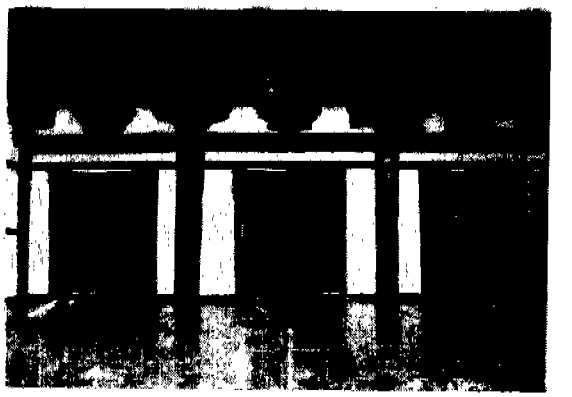


사진 2. 청도향교(울거미널쌍창)

이 형식은 각 柱間의 벽체에 쌍여닫이의 떠장널 또는 울거미널 窓(또는 門)을 동일하게 시설한 것으로 가장 많은 13個所[11]의 鄕校에서 나타났다.

開口部는 3間(또는 2間)으로 이루어져 있는 각 柱間의 心壁[12] 또는 板壁[13] 중앙부에 창틀(또는 문틀)이 설치되어 있다.창틀은 머름을 들이고 있으나 문틀은 통행에 불편을 주는 머름 없이 퇴중방 위에 놓여 있어 창틀보다 키가 크다.

한편 머름없이 운두가 다소 높은 밑틀을 퇴중방 위에 놓아 他鄕校보다 창턱을 비교적 낮게한 장기,순흥향교의 모습은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관심을 갖게한다.

8) 慶州鄕校:御間,龍宮鄕校:右挾間의 웃,밑틀,善山鄕校:左挾間의 밑틀.

9)영쌍창이...高麗時代에도 사용되었던...,朝鮮時代에는 初期에서 中期에 이르는...많은 건물에...널리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던 窓門樣式으로 생각된다.(金一鎭,韓國建築의 櫺雙窓에 관한 硏究,東國大,博士學位論文,1988, P.172.)

10) 문지방을 퇴중방으로 삼고 웃틀을 昌枋 밑에 붙여 높이를 키웠는데,이는 大廳에서 건물 背面쪽으로 드나들 수 있는 出入門을 내기 위하여 後改한 것이다.

11)禮安,高靈,玄風,比安,開寧,義城,永川,知禮,淸道,長鬐,軍威,興海,順興鄕校.

12) 비안,고령,의성,지례,청도,순흥향교.

13) 장기,개령,현풍,예안,흥해,군위,영천향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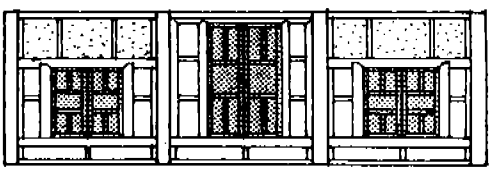
창틀의 맞춤은 맞댄,안연귀,연귀맞춤[14]으로 결구되어 있는데,현풍향교는 예외적인 제비초리연귀맞춤으로 그 모습이 독특하다.

이러한 창,문틀을 구성하고 있는 부재는 創建 당시의 것으로 간주되는 舊材가 일부[15] 남아 있으나 대부분 後代 工事時에 改替된 것으로 보인다.특히 이들 창,문틀에 달려 있는 창,문짝은 띠장널[16] 또는 울거미널[17]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부재상태를 통해서 모두 後代에 改替된 것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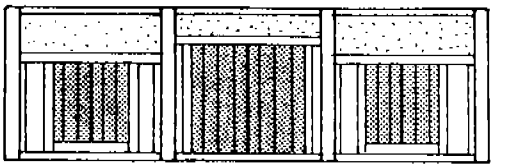
이상과 같은 II形式은 일견 I形式과 유사하나 두 가지의 두드러진 차이점을 들 수있다.첫째는 머름을 들인 開口部 즉 窓의 기능을 가진 開口部에 I形式의 특징인 가운데설주가 없고,둘째는 머름을 없애고 開口部의 키를 키워 門으로 사용하고 있는 예외적인 모습을 영천,청도[18]향교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II形式은 時期的으로 16C 後半에서 20C 後半에 이르는 너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특히 20C 後半의 늦은 時期에 나타난 키가 큰 開口部는 나머지 形式보다 開放性을 느끼게 하는 門으로 주목된다.

3-3. III形式



울거미널쌍창
(신령향교)



띠장널쌍창
(하양향교)

그림 3. III 形式

사진3. 진보향교(울거미널쌍창)

이 형식은 배면 벽체에 나 있는 세 開口部 중 御間 것을 左,右挾間보다 유달리 크게 하고 각기 띠장널 또는 울거미널 窓(또는 門)을 시설한 것으로,眞寶,新寧,河陽,延日鄕校에서 나타났다.

開口部는 3間으로 구성된 각 柱間의 板壁 중앙부에 창틀 또는 문틀이 설치되어 있다.창틀은 장기향교(II形式)처럼 꾀중방 위에 밑틀을 얹어 턱을 낮게한 하양향교(左,右挾間)를 제외한 모두가 판머름을 돌이고 있으며, 문틀은 꾀중방을 밑틀로 하거나(하양) 낮은 꾀중방 위에 밑틀을 첩놓아(연일) 左,右窓 밑틀보다 낮게 하였다.御間의 창틀은 昌枋을 웃틀로 사용하거나(진보) 昌枋 밑에 웃틀을 붙였기(신령) 때문에 左,右挾間의 창틀보다 높다.이로 인해 이 두 窓은 자칫 門으로 느껴지기 쉽다.또 御間 문틀의 경우 하양향교는 웃틀을 左,右挾間보다 다소 높은 곳

14)맞댄:장기,고령,흥해,군위,지례,영천,청도,순흥. 안연귀:개령,의성, 연귀:비안,예안.
15)비안향교:우측 창틀의 밑틀,현풍향교:둔테.
16)비안,고령,현풍,예안,흥해,의성향교.
17)장기,개령,군위,지례,영천,청도,순흥향교.
18)대청 배면 뒷쪽에 통행을 읽게하는 쪽마루가 시설되어 있음.

에 두고 좌,우설주를 좌,우기둥에 거의 접할 정도로 근접시켜 문틀의 폭과 높이를 크게하였으며,연일향교는 외여닫이인 左,右挾間의 창과는 달리 쌍여닫이를 달아 폭을 넓히고 左,右挾間의 머름 높이 만큼 아래로 키를 키웠다.또 이들 門 뒷편에는 출입을 입증하는 디딤돌까지 놓여 있다.

창틀의 맞춤은 안연귀(진보,신령)와 맞댄(하양,연일)맞춤으로 결구되어 있는데,진보,신령향교의 御間은 左,右挾間의 맞춤과 달리 각기 맞댄,제비초리연귀 맞춤으로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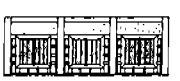
창틀을 구성하고 있는 部材들은 일부의 창짝[19]을 제외한 모두가 變形의 흔적이 남아 있지 않은 비교적 산뜻한 부재로 創建 이후의 工事時에 改變된 것으로 추정된다.

창,문짝의 종류는 울거미널(진보,신령,연일)과 띠장널(하양)로 되어 있는데,단지 진보향교의 御間 開口部만 예외적인 높은 굽널을 돌인 井字살로 꾸며져 있어 흥미롭다.

이상에서 살펴본 III形式은 御間의 開口部를 좌,우보다 높게하고 또 일부는 넓게까지 한 것이 특징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러한 III形式은 19C 中半 以後 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근자인 20C 後半까지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여기서 한번 관심을 가져볼 것은 이들 III形式을 앞서 살펴본 II形式 중에서 門으로 사용하기 위해 開口部의 키를 키운 영천,청도향교와 함께 相考해 볼 때 그 時期와 외관이 유사성을 띠고 있다는 것이다.

표1. 鄕校 明倫堂 大廳 背面 開口部形式의 總括

건축연대는 명륜당과 관련된 일부연대임

형식	향교명	건축연대	개 구 부 형 식	주간벽체	개구부틀맞춤	창호종류	머름유무	달기	비 고
I	星州	창건:1397 중수:1561 보수:1984		심벽	맞댄	띠장널 영쌍창	유	둔테	복원형식 (현상:띠장널쌍창) 흔적:가운데설주흠
	仁同	창건:미상 이건:1634 중수:1725		판벽	연귀	띠장널 영쌍창	유	둔테	복원형식 (현상:띠장널쌍창) 흔적:가운데설주흠,둔테자국
	善山	창건:1396 중수:1624 보수:1973		판벽	안연귀	띠장널 영쌍창	유	둔테	복원형식 (현상:띠장널쌍창) 흔적:가운데설주흠,좌협간밑틀개체
	慶州	창건:미상 중건:1614 중수:1974		심벽	맞댄	띠장널 영쌍창	유	둔테	복원형식(현상:울거미널쌍창) 흔적:가운데설주흠,좌협간밑틀개체
	英陽	창건:1683 중수:1925 보수:1983		판벽	안연귀	울거미널 영쌍창	유	돌쩌귀	복원형식(현상:울거미널쌍창) 흔적:가운데설주흠,창짝개체
	龍宮	창건:1398 이건:1512 재건:1603		판벽	안연귀	띠장널 영쌍창	무	둔테	복원형식(현상:띠장널쌍창) 흔적:가운데설주흠,우협간개번,창짝개체

19) 진보향교:左,右挾間의 창짝, 신령향교:左挾間의 창짝.

형식	향교명	건축연대	개 구 부 형 식	주간벽체	개구부틀맞춤	창호종류	머름유무	달기	비 고
Ⅱ	比安	창건:미 상 이건:1737 재건:1887		심벽	연 귀	띠장널 쌍 창	유	둔테	창짝 일부와 우측창 밑틀 개체
	長鬐	창건:1396 이건:1922 중수:1982		판벽	맞 댄	울거미널 쌍 창	무	돌쩌귀	창틀 및 창짝개체
	高靈	창건:미 상 중수:1676 보수:1702		심벽	맞 댄	띠장널 쌍 창	유	둔테	창틀 및 창짝 일부개체
	開寧	창건:1478 중건:1837 중수:1902		판벽	안연귀	울거미널 쌍 창	유	돌쩌귀	창틀 및 창짝일부개체
	玄風	창건:미 상 중수:1601 보수:1759		판벽	제비초리 연 귀	띠장널 쌍 창	유	둔테	둔테 일부 개체
	禮安	창건:1415 이건:1589 재건:1745		판벽	연 귀	띠장널 쌍 창	유	둔테	
	興海	창건:미 상 중수:1803 신축:1990		판벽	맞 댄	띠장널 쌍 창	유	둔테	창틀 및 창짝개체
	軍威	창건:1407 이건:1701 중건:1988		판벽	맞 댄	울거미널 쌍 창	유	돌쩌귀	창틀 및 창짝개체
	義城	창건:1394 복건:1602 개건:1921		심벽	안연귀	띠장널 쌍 창	유	둔테	창틀 및 창짝개체
	知禮	창건:1485 중건:1690 중수:1973		심벽	맞 댄	울거미널 쌍 창	유	돌쩌귀	창틀 및 창짝개체
	順興	창건:1304 복설:1683 보수:1989		심벽	맞 댄	울거미널 쌍 문	무	돌쩌귀	창틀 및 창짝개체
	永川	창건:1546 중건:1622 중수:1955		판벽	맞 댄	울거미널 쌍 문	무	돌쩌귀	문틀 및 문짝개체
	清道	창건:미 상 이건:1734 보수:1978		심벽	맞 댄	울거미널 쌍 문	무	돌쩌귀	문틀 및 문짝개체
Ⅲ	眞寶	창건:1404 환건:1882 이건:1896		판벽	안연귀	울거미널 쌍 창	유	돌쩌귀	창틀 및 창짝개체
	新寧	창건:1432 중건:1852 중수:1957		판벽	안연귀	울거미널 쌍 창	유	돌쩌귀	창틀 및 창짝일부개체
	河陽	창건:미 상 중건:1862 중수:1926		판벽	맞 댄	띠장널 쌍창+문	무	둔테	창·문틀 및 창·문짝개체
	廷日	창건:1507 중건:1921 중수:1990		판벽	맞 댄	울거미널 쌍창+문	무	돌쩌귀	창·문틀 및 창·문짝개체

4. 開口部形式의 分析 및 變遷

표 2. 開口部形式의 時期別 分布

(　　)는 개구부의 추정조성연대

형식 \ 시기	16C	17C	18C	19C	20C
I	성주(중수:1561)	용궁(재건:1603) 경주(중건:1614) 선산(중건:1624) 인동(이건:1634) 영양(창건:1683)			
II	예안(중창:1589)		고령(이건:1702) 현풍(이건:1759)	비안(재건:1887)	개령(중수:1902),의성(개건:1921) 영천(중수:1955),지례(중수:1973) 청도(보수:1978),장기(중수:1982) 군위(중건:1988),순흥(보수:1989) 흥해(신축:1990)
III				신령(중건:1852) 진보(이건:1896)	하양(중수:1926) 연일(중수:1990)

지금까지 살펴본 開口部形式을 표-2를 바탕으로 종합하여 전체적인 흐름을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1) I形式은 가장 이른 時期인 16C 中半과 17C에 속한 향교에서만 나타나고 있을 뿐 18C 以後에는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時期的으로 II,III形式보다 빠른 I形式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옛 흔적을 바탕으로 復元한 古式의 窓樣式인 영쌍창이라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이러한 I形式에 속한 향교들은 모두 졸고[20]에서 다룬 廳房間 開口部形式에서 가장 앞선형로 밝혀진 窓+門 I形式[21]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무엇보다도 이 時期에 窓을 통한 출입을 제한 하는 상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22] 영쌍창이 널리 사용되었음을 강하게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이렇게 볼 때 I形式은 절제와 규범을 중히 여기던 朝鮮時代 前半期의 儒敎傳統에 교화된 사회에 적응한 건축적 유형의 한 예로 생각된다.한편 I形式 중 가장 늦은 17C 後半에 나타난 영양향교가 나머지 향교와 달리 유일하게 울거미널 영쌍창으로 꾸며져 있어 주목된다.

(2) II形式은 예안향교와 같은 16C 後半의 건물도 포함되어 있지만 나머지는 모두 I形式이 사라지기 시작한 18C 以後에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II形式에 속한 향교가 과반수(13/23)를 넘고 있음을 볼 때 II形式이 18C 以後 形式 중 가장 보편화된 것이라 생각된다.이는 무엇보다도 3-1에서 살펴본 I形式의 復元前 즉 가운데설주가 없는 모습이 II形式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이들 중 가장 이른 16C 後半에 속해 있는 예안향교는 비록 한 예에 불과하지만 I形式이 주류를 이루던 時期에 II形式이 드물게나마 사용되었음을 엿보게 하는 좋은 예로 판단된다.

한편 유달리 開口部의 키를 키워 開放性을 높이고 있는 영천,청도향교는 비교적 늦은 20C 中半 以後에 나타난 것으로 II形式 중에서도 또 다른 모습이라 하겠다.

20) 鄭明燮,앞 論文.
21) 窓+門 I形式은 大廳과 房 사이에 시설된 경계벽의 左,右 柱間에 각기 窓과 門을 낸 것으로 15C 初에서 18C 後半에 속한 건물들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특히 窓 중에서도 영쌍창을 취한 것은 大廳 背面 영쌍창보다 다소 빠른 17C 初까지만 나타났다.
22) 金一鎭,앞 論文.

이처럼 머름을 없애고 開口部의 턱을 낮춤으로써 이들은 외관상으로 보아 窓보다 門에 가깝다.현재 청도향교는 3間 大廳 背面 뒷편에 쪽마루를 시설하여 大廳에서 건물의 뒷쪽과 大成殿으로의 動線을 단축하기 위한 出入門으로 이용하고 있다.이를 통해서 편리성 추구의 일면을 읽을 수 있겠다.그렇다면 3-2에서 관심을 가져본 장기,순흥향교의 낮은 창턱은 窓이 門으로 변화되던 時期의 과도기적인 모습으로도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으로 주목된다.

따라서 II形式은 출입 통제를 암시하던 I形式의 가운데설주가 없어지고 또 窓이 門으로 바뀌어가는 경향을 엿보게 하는 턱이 낮은 키큰 開口部가 일부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3) III形式은 앞의 I,II形式보다 늦은 19C 中半 以後 부터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3間 背面 開口部 중 가운데 것을 좌,우보다 특별히 크게하여 다소의 開放性을 띠게한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다.이들 중 약간 앞선 時期에 나타난 진보,신령향교는 3-3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운데 開口部가 일견 門으로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출입이 어려운 窓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비해 하양,연일향교의 御間 開口部는 출입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여기서 진보,신령향교와 하양향교의 左,右挾間 開口部를 II形式의 장기,순흥향교와 함께 相考해 볼 필요가 있겠다.이들의 공통점은 평면적으로 窓의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門에서 주로 찾아 볼 수 있는 일반적 공통인자 즉 머름을 없애거나 開口部의 높이와 폭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이들 形式을 窓이 門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과도기적 모습으로 추정할 수 있겠으나 잘 알 수가 없다.그러나 모든 건축양식의 탄생과 소멸이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서서히 이루어진다는 일반적 경향에 비추어 볼때 그 가능성은 높다 하겠다.여하튼 이들을 통해서 19C 後半 以後 부터 開口部의 턱을 낮추거나 높이와 폭을 키워 門으로 사용할려는 의지가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추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開口部에 대한 연구의 폭과 깊이가 더해진다면 좀더 확실한 흐름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또한 門으로 사용되고 있는 하양,연일향교와 II形式의 청도,영천향교를 관련지어 보면 같은 20C에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이는 이 時期부터 開放性을 띠게되는 門이 나타나는 開口部의 變遷 경향을 읽게해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이러한 경향은 같은 時期인 20C 後半(重修:1978년)에 나타난 용궁향교의 右挾間 開口部가 出入門으로 改造된 것을 통해서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연일향교의 左,右挾間 開口部는 典形的인 쌍여닫이를 달지 않고 외여닫이를 낸 독특한 모습으로,이를 I,II形式과 함께 비교해 볼 때 20C에 들어서 窓에서 門으로의 기능 변화와 함께 形式이 다소 흐트러지고 있음을 엿 볼 수 있다.특히 진보향교의 御間 開口部(굽널정자살)는 비록 하나이지만 일반적인 예에서 벗어나는 흔치않은 것으로 이를 뒷 받침해 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4) 柱間의 벽체는 板壁 15個所,心壁 8個所로 판벽이 더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판벽은 널을 재료로 한 大廳의 廳板과 窓(또는 門)짝과 의장적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것으로 傳統建築의 大廳 背面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開口部의 골격을 구성하고 있는 틀의 맞춤은 맞댄(12개소),안연귀(7개소),연귀(3개소),제비초리연귀(1개소) 순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이는 특별히 공을 들여야 하는 연귀보다 비교적 쉽게 결구할 수 있는 맞댄,안연귀 맞춤을 주로 채용하였음을 읽게 한다.

開口部를 메우고 있는 窓(또는 門)짝은 널을 재료로 한 띠장널(12개소)과 울거미널(11개소)이 고르게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柱間 벽체와 開口部의 틀맞춤 및 窓(또는 門)짝의 종류는 표-3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時期的 先後와 形式的 특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그러나 이러한 문제 역시 앞으로 그 대상수를 확대한 연구에 의한 時期別,用途別 분석 자료가 집적된다면 대체적인 흐름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세 形式의 전체적인 변화과정을 보면 I,II,III形式 순으로 변천되고 있음을 감지할 수 있다.또한 門의 기능을 갖고 있는 II形式의 영천,청도향교와 III形式의 하양,연일향교는 같은 形式 속에서도 비교적 늦은 20C 中半 以後에 나타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이러한 變遷을 통해서 窓의 기능을 뚜렷하게 암시해주던 가운데설주가 없어지는 경향과 함께 점진적으로 開口部의 턱이 낮아지면서 그 높이와 폭이 큰 門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이는 줄고에서 다룬 廳房間 開口部가 窓을 차츰 없애고 대신 出入門을 보다 많이 설치하여 開放性을 띠게한 대체적인 흐름과 유사하다.이를 통해서 大廳을 에워싸고 있는 廳房間과 背面의 開口部가 後代로 오면서 보다 실용적인 門으로 점차 바뀌어지고 있음을 읽을 수 있겠다.

표 3. 柱間 壁體와 開口部의 틀맞춤 및 窓, 門짝 種類

형식	주간벽체		개구부 틀맞춤				창·문짝	
	관벽	심벽	맞댄	안연귀	연귀	제비초리 연귀	띠장널	울거미널
	(16C~20C)	(16C~20C)	(16C~20C)	(17C~20C)	(17C~19C)	(18C~20C)	(16C~20C)	(17C~20C)
I	4	2	2	3	1	·	5	1
II	7	6	8	2	2	1	6	7
III	4	·	2	2	·	·	1	3
계	15	8	12	7	3	1	12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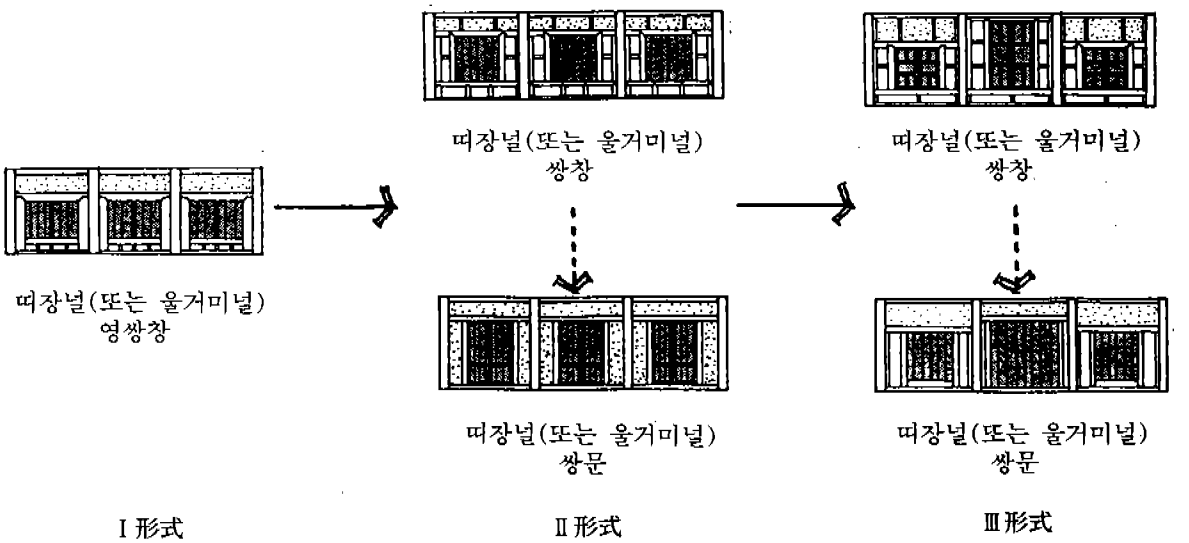


그림4. 大廳 背面 開口形式의 變遷推定圖

지금까지 종합 분석한 開口部形式의 대체적인 흐름을 바탕으로 系統化한 變遷 推定圖는 그림-4와 같다.

5. 結 論

우리나라 傳統建築 開口部形式의 變遷에 관한 일련의 연구로써 慶北地域의 23個所 鄕校 明倫堂의 大廳 背面에 나 있는 開口部를 대상으로 그 形式을 고찰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I形式은 출입을 제한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 가운데설주(樘)를 창틀에 세운 띠장널(또는 울거미널)영쌍창으로 가장 이른 時期인 16C-17C에 대부분 나타나고 있다.따라서 이 形式은 세 形式 중 제일 먼저 나타난 形式으로 17C 以前에 널리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2) II形式은 I形式의 특징인 가운데설주가 없는 띠장널(또는 울거미널)쌍창(또는 문)으로 I形式보다 늦고 III形式보다는 빠른 形式임을 알 수 있다.이 形式은 23個所 중 13個所에서 찾아볼 수 있었던 것으로 18C 以後에 보편화된 形式으로 생각된다.

3) 가장 늦은 19C 中半 以後에 나타난 III形式은 3間 背面의 각 開口部(띠장널 또는 울거미널 雙窓,門) 중 御間 것을 兩挾間보다 크게 한 것으로 그 모습이 독특함을 알 수 있다.門으로 사용되고 있는 御間 開口部가 II形式의 영천,청도향교와 거의 같은 20C 中半 以後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時期에 窓에서 門으로의 기능적 변화가 많이 일어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이처럼 예전과 달리 背面쪽에 開放性을 띤 門을 시설한 것은 大廳에서 건물의 뒷쪽과 大成殿으로의 動線을 단축하기 위한 것으로,이는 편리성을 추구한 것이라 판단된다.

4) 각 柱間의 벽체와 開口部의 틀맞춤 및 窓(門)짝의 종류는 時期的 先後와 形式的 특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다만 板壁(15개소)과 맞댄 맞춤(12개소)이 보다 많이 사용되고,또 띠장널(12개소)과 울거미널(11개소)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음을 읽을 수 있었다.

따라서 鄕校 明倫堂 大廳 背面의 開口部形式은 I,II,III形式의 순으로 變遷된 대체적인 흐름을 감지할 수 있으며,또 20C에 들어 부분적으로 窓을 없애고 開放的인 門을 시설하여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한편 開口部形式이 後代로 오면서 조금씩 흐트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이는 明倫堂 大廳 空間이 절제와 함께 다소간 엄숙한 분위기를 느끼게 하던 初期의 모습이 점차 산만해지고 있다 하겠다.이러한 開口部의 變遷은 朝鮮 初期의 통치이념 이었던 性理學의 규범적 德治主義 思想에 조화를 이루었던 건축 役事가 朝鮮 後期에 대두된 實學의 利用厚生에 둔 가치관과 西學의 合理主義 사고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는 이번의 鄕校 明倫堂과 함께 차후 住宅,書院 등 각 건축용도별은 물론 지역별로 그 대상수를 확대하여 고찰한 후에 이들을 상호 비교 검토하여 보다 명확한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參考文獻

1. 拙稿,朝鮮時代 鄕校 및 書院建築의 廳房間 開口部形式 變遷에 관한 硏究,嶺南大 博士論文,1992.

2. 拙稿,慶北地域 鄕校建築 明倫堂의 開口部

變遷에 관한 硏究,韓國建築歷史學會 論文集,創刊號,1992.
3. 拙稿,書院建築 講堂의 開口部 變遷에 관한 硏究,大韓建築學會 論文集,제8권 10호,1992. 10.
4. 金一鎭,韓國建築의 欞雙窓에 관한 硏究,東國大 博士論文,1988.
5. 李大鎭,鄕校建築 講學空間에 관한 硏究,嶺南大 碩士論文,1988.
6. 慶尙北道,嶺南大 民族文化硏究所,慶北鄕校誌,大邱:三光社,1991.
7. 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文化財管理年譜,啓文社,1991.
8. 文化財修理報告書,文化公報部 文化財管理局,啓文社,1988.